

조지 엘리엇의 페미니즘:

『플로스 강가의 물방앗간』을 중심으로

이 순 구

1.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 비평 경향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가령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라고 생각하여 남녀관계를 권력 관계로 본 밀렛은 엘리엇가 자신은 혁명적인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작품에 담지 않았으며 오히려 러스킨(Ruskin)적인 봉사윤리와 착한 여성이라는 빅토리아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비판한다(139). 엘리엇의 소설의 여주인공들을 스타엘(Madame de Stael)의 소설 『코린』(*Corinne, ou l'Italie*) (1807)의 주인공인 코린의 후예로 본 모어스 역시 엘리엇트는 결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즉 소설가로서의 그녀의 목적은 사회적 장애를 줄여 나가거나 혹은 평범한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줄 선택의 여지를 넓혀 나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감탄을 자아내는 능력만을 지닌 여성인물들의 창조와 항상 관련된다고 비판한다(194). 쇼월터도 엘리엇트의 경우 “모든 희생은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가 그 자체로 덕성이 된다고 폄하했다(124-25). 길버트와 구바도 궁극적으로는 엘리엇트가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문화의 정의를 그대로 내면화했다고 보아 그녀를 작품에서 남성들을 살해하는 “파괴의 천사”로 해석했다(466-67). 페미니스트로서의 엘리엇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프랑쉬와즈 바쉬(Francoise Basch), 페트리샤 스티브스(Patricia Stubbs), 메린 윌리엄스(Merryn Williams), 쉐리 포스터(Shirley Foster) 등의 경우에도 계속된다. 이들을 관통하는 기본 사상은 18세기의 메어리 윌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와 19세기의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 등을 통해 전개되었던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이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이성적 존재라는 18세기적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남성의 그것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중시했다. 따라서 이들은 문

학 작품을 평가할 때 작중의 여성인물들에게 경제적인 독립이나 지적 성취 혹은 자아실현 등이 어느 정도로 주어지는가를 페미니즘의 중요한 척도로 삼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엘리엇의 문학세계를 비판했던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엘리엇의 여성인물들이 구현하는 여성성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여성인물들을 수동적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그들 자신을 파괴시키기조차 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엘리엇의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빅토리아조 당대의 여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엘리엇이 여성인물들을 그렇게 밖에 묘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리얼리즘에 입각한 엘리엇의 페미니즘을 옹호했다. 즉 엘리엇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페미니즘을 부각시키려다보니 완화된 페미니즘에 머물러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가령 캐쓰린 블레이크(Kathleen Blake)는 엘리엇이 여주인공을 사회적으로 상승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만족스러운 결말을 여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주의를 위태롭게 했을 것이라면서 엘리엇의 제한적인 페미니즘을 옹호했다(310). 이러한 옹호는 젤다 오스틴(Zelda Austen)의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녀는 여성해방을 여성의 지적 성취나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자아실현에다 국한시키는 일련의 페미니즘 비평가들의 편협성을 지적하면서, 엘리엇이 여주인공의 욕망을 현실세계에 맞추어 조절했다하여 그녀의 페미니즘에 공감했다(560). 길리언 비어(Gillian Beer) 역시 페미니스트로서의 엘리엇에 대한 모어스의 공격적인 발언과 관련하여 그녀의 『미들마치』(Middlemarch)에 대한 분석은 잠재력이 있는 여성들을 단지 골칫거리로 간주했던 미들마치 사람들의 태도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모어스의 주장에 일격을 가했다(5). 이들은 앞의 평자들과는 달리 페미니스트로서의 엘리엇의 면모를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의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한 페미니스트였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그러했다. 이들 역시 앞의 평자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여주인공들에게서 빅토리아기의 이상적인 여성상만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이 구현하는 여성성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페미니즘에 대한 조세핀 도노반(Josephine Donovan)의 입장은 엘리엇의 페미니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그녀는 19세기 페미니즘에 계몽주의적-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 나란히 문화적 페미니즘이 있다고 보고, 전자는 여

성과 남성을 동등하다고 보아 여성도 제반 분야에서 남성과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그리고 후자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여성들이 지닌 여성적인 가치들 — 평화주의, 협동, 차이점들의 비폭력적 화해, 공공생활의 조화로운 조절 등 — 이 결국 사회 개혁의 도덕적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므로써, 둘 다 가부장제의 성이데올로기에 반박했다고 주장한다. 즉 윌스톤크래프트의 『여권 옹호론』(*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이래로 활발하게 전개된 계몽주의적-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빅토리아조 기간에 이르면 헤리엇 테일러, 밀 등을 거쳐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갈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법적 권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마가렛 풀러(Margaret Fuller)의 『19세기 여성』(*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을 출발점으로 한 문화적 페미니즘이 여성의 경험과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옹호해 나갔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노반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최근의 페미니즘 이론가들도 기본 취지에서는 이러한 19세기의 문화적 페미니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육아 혹은 모성체험에 입각한 여성의 인식론과 도덕적 비전이 새로운 공공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새러 러딕(Sara Ruddick 342-67), 여성의 도덕적 관점은 남성의 도덕적 관점과는 달리 정의보다는 보살피는 행동과 관련이 있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며 분리(detachment)보다는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존중한다고 보아, 이러한 여성의 도덕적 관점도 하나의 유효한 도덕적 관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1-3장), 그리고 엘렌느 시수(Helene Cixous)와 루스 이리거레이(Luce Irigaray), 주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등의 포스트모던 혹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출현도 기본적으로는 여성적인 체험과 여성적인 가치들을 존장하는 19세기 문화적 페미니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1-2장 참조).

수전 그레이버(Suzanne Graver)도 최근의 글에서 제인 렌덜(Jane Rendall)의 연구 결과대로 19세기에 계몽주의적 페미니즘과 나란히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이 존재했다는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그레이버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며 또한 열등하다는 것이 19세기의 일반화된 공론이었다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계몽주의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거부하고 동등함을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만인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과 문화에 뿌리를 둔 여성고유의 가치들을 찬미함으로써 각기 이러한 가부장제의 성이데올로기에 대항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에는 엘리엇트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나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다며 그녀야말로 『미들마치』를 통해 19세기의 두 주요 페미니즘에 내재된 가치들을 탐구하고 극화시키면서 중국에는 그녀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페미니스트였다고 주장한다(“‘Incarnate History’: The Feminisms of *Middlemarch*” 64). 특히 그녀는 『미들마치』에서 엘리엇트가 두 가지 페미니즘 사이의 이원론이 아닌 종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며, 열렬한 정신을 지닌 도로시아 브룩(Dorothea Brooke)라는 인물 자체가 감정과 지성에 대한 넓은 이원론을 깨뜨렸다고 파악했다. 나아가 그레이버는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접근은 계몽주의적 페미니즘과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의 구체화를 통해서 엘리엇트가 어떻게 각 페미니즘의 장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또한 양자를 넘어설 필요를 제시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9세기 페미니즘에 문화적 페미니즘 혹은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을 포함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태도는 아직은 개인적인 견해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여성적인 특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여성에게서 도덕적 갱생의 근원을 찾으려 했던 엘리엇트의 페미니즘을 친착하려 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George Eliot Letters*, 4, 467-68과 8, 402).

이에 필자는 19세기에 계몽주의적 페미니즘과 나란히 문화적 혹은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이 존재했다는 이러한 일군의 평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엇트의 소설이 지닌 페미니즘적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엘리엇트의 소설이 여성과 남성을 서로 다르다고 보고 여성성의 가치가 남성성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갱생의 도덕적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에 토대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성의 가치만 가지고는 여성들이 종종 그들만의 가치들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계몽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중시하는 권리, 자율성, 자아실현 등과 같은 가치들도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라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엘리엇트가 당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페미니즘에 대해 냉담했다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일반의 비평경향들에 맞서, 오히려 당대의 페미니즘들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주장들을 그녀의 작품 안에 활발하게 도입하고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 페미니즘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페미니즘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플로스 강가의 물방앗간』(*The Mill on the Floss*)¹⁾은 엘리엇의 소설 중에서 남녀간의 성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예증하는 첫 번째 소설이다. 탐(Tom)과 매기(Maggie)의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 소설은 여아와 남아의 발달과정을 그 차이에 주목하면서 두 인물의 도덕적 발달을 대비시켜 전개한다. 여기서 작가는 서로 다른 도덕적 태도들의 충돌로부터 초래되는 고통스러운 갈등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매기가 대변하는 도덕적 관점은 흔히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성성의 가치에 근거하며, 탐이 대변하는 가치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남성성의 가치에 근거한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볼 때 자신을 타인과 분리시킴으로써 독립적인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데 성공하는 탐의 성장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매기의 심리발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²⁾ 그러나 이 두 인물에 대한 엘리엇의 태도는 탐이 아닌 매기를 옹호하는 것이다. 탐의 경우 세계관이 자아에 고정되어 편협성과 독선을 드러내는 인물로 성장하는 반면 매기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자아와 타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는 성숙한 인물로 발전한다. 그럼으로써 엘리엇은 탐이 구현하는 남성성의 가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매기가 추구하는 여성성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제시한다. 나아가 여성의 경험에 입각한 여성성의 가치가 경쟁과 계산, 그리고 이기심이 창궐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오히려 도덕적 갱생의 새로운 대

1) 이 후 편의상 『물방앗간』으로 줄여 쓰겠다.

2) 프로이트는 일찍이 여성의 심리발달 과정에서 남성의 경우에 찾아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관계를 발견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일찍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로서 성장하는 남들과는 달리 여아는 어머니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독립을 지향하려 않는다. 이러한 여성의 심리발달에 나타나는 특성을 프로이트는 심리발달의 실패로서 간주하였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감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판단에 있어서도 애정이나 적대감 등의 감정의 영향을 더 받는 등 여성의 심리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XIX, 257-58). 남녀간 심리발달의 차이가 곧 여성의 심리발달의 실패로 간주되는 이러한 프로이트 이론은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자들에게서도 계속되었다. 장 삐아제(Jean Piaget), 자넷 레버(Janet Lever),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최근의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등이 바로 그들로서 이들은 남아의 심리발달을 모든 아동의 심리발달의 규범으로 보고 이에서 벗어나는 여아의 심리발달은 열등한 것이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³⁾

매기를 통해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여성성의 가치이다. 그것은 이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주의에 입각한 19세기 빅토리아조 사회의 관습적인 가치와 다른 것으로서 능률과 합리성, 계산과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태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중시하는 가치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사실보다는 상상력을, 물질보다는 정신을 높이 사는 것으로 빅토리아조 시대에 팽배해진 공리주의와 산업화의 경향과 배치되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엘리어트는 그녀의 사실주의 소설의 틀 안에서 낭만주의 정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톤 1장 6장과 케이 엠 뉴튼 1장 참조).

매기의 여성적인 특질들은 무엇보다도 오빠 탐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그녀의 다정다감함은 오빠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 몫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녀는 탐이 두 쪽으로 갈라진 썸과자를 내밀며 마음대로 한 쪽을 골라잡으라고 하자 기꺼이 탐에게 썸이 들어 있는 맛있는 쪽을 먹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맛있는 쪽을 골라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쪽을 먹어야만 할 때 그녀는 탐에게 무한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계속 먹지 않겠다고 우기면 탐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 자신이 골라잡은 썸과자를 삼킨다. 이 때 탐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며 그녀를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한다. 매기는 탐의 분노에 곧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절망한다(99-100).

3) 이러한 엘리어트의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1970-80년대에 등장한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와 길리건, 진 베이커 밀러(Jean Baker Miller), 러디(Sara Ruddick) 등 일군의 심리학자들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프로이트 이래의 심리발달 이론에서 남성의 편견을 보았다. 이들은 남성의 심리발달을 규범으로 보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의 심리발달을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여성의 심리발달은 그 자체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며 거기에 인간적인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 발달에서 어느 한쪽의 우열이 아닌 차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의 심리발달로부터 남성의 심리발달이 지니고 있지 못한 장점들 — 모성애, 감정이입, 보살핌, 책임 중시 등 — 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역으로 사춘기 이후 분리와 개체화를 쉽게 이룩하는 남성의 심리발달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어 나가지 못하는 남성성의 한계와 미성숙을 발견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들의 심리발달 연구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19세기 문화적 페미니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엘리어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지닌 여성성의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소설의 시작부터 화자는 매기 안에 자리잡고 있는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의 성격을 강조한다. 탐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오던 날 그는 호주머니에서 그가 사온 낚시줄을 꺼내며 매기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다음날 고기잡이를 같이 가자고 제안할 때, 매기는 그녀의 두 팔을 그의 목에 감아 끌어안으며 기쁨을 표현한다(86). 그러나 탐이 곧 토끼를 보러 가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녀는 밥을 주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토끼들이 이미 다 죽어 버렸기 때문이다(87).

토끼를 죽게 했다고 매기를 혼내준 탐이 떠나버리자 매기는 비참한 심정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픔에 휩싸인다. “탐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람!”(89)이라는 절망감으로 그녀는 그 곳에서 몇 시간을 보낸다. 아무도 그녀가 없어진 줄도 모른 채 그녀를 찾지 않자 그녀는 그 곳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탐이 데리러 올 때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자존심을 앞세우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가족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화자는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그녀의 자존심을 포기하게 만든 게 그녀 안에 자리잡고 있는 강렬한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화자는 이때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들간의 상호관계를 삶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돌리려는 사물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 혹은 특정한 관점의 토대로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녀 쪽에서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탐을 용서하고 또 그로부터 용서를 구하게끔 하는 매기 안에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사랑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에 대해 화자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해설한다.

이 애정의 굶주림, 즉 사랑에 대한 이러한 갈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놀라운 진압자이다. 그것은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명에에 굴복하게 해서 세상의 국면을 바꾸도록 하는 다른 갈망만큼이나 우리를 구속하는 데 강력하다. (91)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에 기꺼이 반응하려는 매기의 도덕적 관점은 스텔링(Dr. Stelling) 선생의 집에 그녀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필립(Philip Wakem)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매기는 필립이 오빠와는 다르게 그녀 자신의 똑똑함을 알아봐 주기를 기대한다. 이 무렵 필립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충족되지 않은 지성과 충족되지 않은, 갈구

하는 애정”(253)을 읽어내는 유일한 인물로서 그녀가 방문을 마칠 무렵 마침내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다(260). 이 때 그녀는 처음 남에게서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에 감격해 하면서 자신에 대한 필립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녀는 필립의 감정에 반응하며 그녀로부터 응답 받고자 하는 그에게 입맞춤을 한다.

한편 탐의 도덕적 관점은 원칙과 권리에 입각한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공감적 반응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법의식, 권리, 정의, 위계질서, 원칙 등과 같은 남성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어린 시절 탐과 밥(Bob)이 동전 놀이하다 다투는 장면은 이러한 탐의 도덕적 관점을 잘 드러낸다. 둘은 동전을 가지고 “머리와 꼬리” 놀이를 하게 되는데 밥이 먼저 그의 동전을 공중에 날려 땅에 떨어뜨린다. 윗면이 머리면 이기는 것이고 꼬리면 지는 것이다. 탐은 떨어지는 동전을 보며 “꼬리”라고 외친다. 밥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리”라고 소리치며 동전을 손안에 넣는다. 물론 이 때 밥이 탐을 속였다. 탐은 공정하게 자기가 이겼으니 동전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수세에 몰린 밥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가라고 하자 탐은 밥이 자발적으로 내놓을 것을 위협한다. 그러나 막상 밥이 동전을 땅에 내던지자 탐은 동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밥을 굴복시킴으로써 탐이 얻고자 하는 바는 놀이에 공정하게 임할 줄 모르는 밥을 응징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원칙에 대한 존중이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그는 놀이에서 속임수를 쓴 밥에게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절교를 선언한다(105).

아이러니하게도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우월감이 강한 탐에게도 매기가 경험한 것과 같은 열등감과 소외감, 그리고 고통을 체험하는 기간이 있다. 스텔링 선생의 보호 아래 킹스 로턴(King's Lorton)에서 맞는 첫 학기가 바로 그 기간이다. 스텔링 선생의 교사로서의 엄격함은 탐으로 하여금 종종 겁에 질리고 당혹스러우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나약한 생각에 빠지게 한다. 그는 이 무렵 스텔링 선생의 아기인 로라(Laura)를 보살피고, 동생 매기를 그리워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서 그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정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요소들이다. 그러나 남성으로서의 그의 성장 과정은 이러한 감정은 열등하며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교육받는다. 스텔링 선생은 철저

한 여성평화의 인물로서 가부장제의 논리를 내면화한 인물이다. 그로부터 탐은 남성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되며 그가 받는 교육은 인간의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빅토리아조의 신사교육이 그러한 것처럼 객관성을 존중하고 합리주의를 지향한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애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조장한다(피츠파트릭 19).

따라서 그의 성인으로서의 성장은 그의 내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의심과 두려움, 외로움 등과 같은 연약한 감정들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12세의 나이에 탐은 이러한 남성다움을 현저하게 보여준다. 탐이 스텔링 선생의 학교로부터 휴가 받아 처음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온 가족은 그를 기쁨으로 열렬히 맞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동생은 두 발로 뛰어올라가 그를 맞는 동안 그는 이러한 다정다감한 애정의 표현에 애써 “남성적인 조심성”으로 응답한다(84). 그는 이들과 같이 기뻐하기보다 저만치 서 있는 개에게 손짓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장한다. 이것은 그가 솔직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남성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의 남성다움은 필립(Philip)과의 관계에서도 그 한계를 보여준다. 탐은 신체 불구자인 필립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탐으로서 필립이 단지 아버지의 적이어서만 그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곶사등이”어서 탐이 잘 할 줄 아는 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탐이 발에 부상을 입어 누워 있을 때 잠시 형성되기는 하지만 탐의 건강이 회복되어 더 이상 필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멀어진다. 결국 탐의 무감각은 필립을 화나게 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그들의 짧은 우정은 끝난다. 작가는 이 때 약자인 필립에게 끝까지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으려는 탐의 완고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탐은 필립이 ‘악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천부적인 적이라는 생각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고, 필립의 불구에 대한 혐오감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그는 일단 받은 인상들에 완고하게 집착하는 남아였다. 단순한 지각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에 그러한 것처럼, 외적인 것은 그에게 처음에 인상 지워진 대로 완고하게 남아 있었다. (239)

어린 시절의 탐과 매기는 아직 그들의 성의 역할이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차이가 의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정은 그들 사이의 성의 간격을 더욱 크게 하며, 그들을 어쩔 수 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간다. 탐은 점점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며 매기는 점점 더 그 권위에 굴복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탐이 16세의 나이로 킹스 로턴에서 5학기 째 수학하던 무렵 그리고 매기가 미스 퍼니스(Miss Firmiss)의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던 무렵 아버지가 웨이컴과의 재판에서 지자 작가는 그들 앞에 놓인 험난한 삶을 예고하듯 어린 시절의 “황금빛 문”이 그들 뒤로 영원히 닫히고 그들이 가시덤불이 많은 황야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해설한다(270). 작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황금빛 문”으로 묘사될 수 있는냐는 비평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⁴⁾ 성의 차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작가의 이러한 발언은 합당하다고 본다. 즉 그들의 성장과정은 그들을 더욱 반목과 대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들의 유년기를 “황금빛 문”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물방앗간』에서 탐은 자신을 어머니, 누이동생, 아버지 등 타인과 분리시킴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일을 성취함으로써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아버지의 병세가 그를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家長)이 되게 했을 때 이러한 발달 과정은 점점 더 가속화된다. 그는 자수성가한 이모부 딘(Mr Deane)을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며 출세하기 위해 부기 등 필요한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 그의 모든 관심은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의 목표에 집중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어 “양철금고”에 쌓아둔다. 그리하여 4년 뒤에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진 빚을 다 갚는다(5권 6장과 7장). 그는 자본주의 그 자체처럼 돈을 축적할 줄 알고 투자할 줄 아는 인물이다(피셔 71). 일을 하지 않을 때의 그의 모습에 대해 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가 그렇게 뚱하니 혼자서 이마를 찡그리고 밤에 난롯불을 들여

4) 그레이버는 탐과 매기의 어린 시절의 묘사는 슬픔과 오해로 가득차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 시절 장면들 중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장면들--매기가 인형에 못을 박고, 머리를 싹둑 잘라 버리고, 루시를 진흙탕에 처박아버리고, 집시들에게로 도망가는 일들 — 은 제1권의 결말부분에서 기억되는 ‘어린 시절로의 … 황금빛 입구들’을 환상으로 만든다.” (George Eliot and Community, 198)

다보고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면. 내 마누라 말이 자기가 어찌 다 들어가도 알아채지도 못한다는 거야. 난롯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마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쪼그리고 있다는구면.’ (501)

그러나 매기의 심리발달은 탐과는 다른 과정을 밟는다. 그녀는 탐과 같은 독립, 자율성, 자아실현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탐의 도덕적 발달과정에 수반되는 권위주의, 위계질서, 권력지향주의 등과 같은 속성들이 그녀의 도덕적 발달과정에는 수반되지 않는다. 탐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들의 한가운데에서 바라본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맺은 심리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녀는 성장하면서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책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개념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그녀의 자아인식과 자기주장과 권리의 개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그녀의 도덕적 발달의 주요 내용이 된다.

1) 오빠에 대한 매기의 반항과 순응

매기가 가족 몰래 필립을 만나러 다니다 발각되었을 때 탐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매기에게 분노하고 그녀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탐 자신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 아버지가 진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는 이 때에 매기는 정반대로 가족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다녔다면서 성경에 손을 얹어 다시는 필립을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일러바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매기는 오빠의 태도가 잔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항상 그렇듯이 어찌면 오빠가 옳고 자신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446). 그녀는 오빠에 이끌려 필립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며 탐은 그 곳에서 그 동안 동생을 몰래 만나온 필립에게 따진다. 탐은 우선 필립에게 이 모든 그의 행실이 남자답지 못하며 신사답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그는 필립에게 부모들이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데 동생에게 사랑을 고백할 권리가 있느냐고 묻는다. 또한 불구인 그가 감히 신체 건강한 자신의 여동생의 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448).

즉 권리와 원칙에 입각한 탐의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필립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적(敵)의 아들이 동생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나쁘며”, 불구이고 결함이 있는 남자가 동생에 대해 낭만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나쁘다”. 또한 매기가 가족의 명예의 원칙에 따른 그의 판단에 불순종하고 이를 의문시하는 것도 “나쁘다”. 이 때 매기는 그 동안 자신이 의로웠고 필립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으며, 집안간의 증오와 적대감이란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말하지만 탐에게 그런 주장은 “분별없는 것”(446)일 뿐이다. 필립 역시 탐에게 매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실하며 변함없는 것임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 역시 탐에게는 “분별없는 것”(447)일 뿐이다. 탐의 도덕적 관점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필요에 대한 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왜 동생이 필립을 만나려했는지 또 필립은 왜 동생을 만나고 싶어했는지에 대해 알려들지 않는다.

뒤이어 벌어지는 레드 딥스(Red Deeps)에서의 탐과 매기의 정면 대결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을 첨예하게 대립시키며 이 때부터 탐의 도덕적 관점에 대한 매기의 반항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전달되기 시작한다. 탐은 마치 죄수를 현장에서 검거하듯이 매기의 손목을 끌고 가는데 마침내 매기는 탐으로부터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탐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 그녀는 특히 동정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결핍하고 있는 그의 도덕관을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필립의 신체적인 불구에 대한 탐의 모욕적인 발언에 담긴 감정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탐의 태도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매기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탐의 도덕적 관점이 지닌 독선과 편협함을 지적한다(449).

이에 대해 탐은 그렇게 필립을 몰래 만나고 다닌 일이 옳은 행위였다면 왜 말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이로움이라도 주었느냐고 묻는다. 매기는 만일 자신이 잘못을 범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감정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옹호한다. 그리고 자기라면 만일 탐이 잘못을 범했다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 더 이상 징벌을 가해 그의 고통을 배가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탐은 자신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녀에 대한 징벌을 즐겨 왔다면 그를 비난한다. 이에 탐은 매기가 지닌 감정들이 자신의 것보다 그렇게 나은 것이라면 모두에게 불명예스럽지 않은 행위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 달라고 그녀에게 주문한다. 즉 자신과 아버지에게는 왜 그녀가 강조하는 사랑을 불순종과 속임수의 형태로만 보여 주느냐며 탐 자신은 애정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한

다. 이에 매기는 탐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서 그토록 높이 칭찬하는 행위를 자신이 할 수 없는 까닭은 자신은 바로 여성이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탐은 남자라 능력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은 여자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매기의 인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대의 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부과된 불평등한 기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은 매기가 여성임으로 해서 제약받는 사회 환경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 그는 오히려 매기의 말을 받아 그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답한다(450).

필립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매기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필립과의 대면을 끝낸 뒤 다시 매기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는 장면에서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탐의 특징적인 면모는 타인에 대한 그의 지배의지이다. 간략히 말해 그가 매기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녀의 복종이며, 여기서 탐과 매기의 관계는 지배 종속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탐은 지배하려는 남성의 욕망과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자본주의의 윤리를 결합하는 인물로서 그는 남성의 권력을 위협스러운 것으로 파악한 엘리엇의 시각을 반영한다(쥬디스 뉴튼 141). 그의 지배의지는 새로운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인물의 가부장제적 속성으로서 이 작품의 스티븐(Stepher)에게서도 발견되며 엘리엇의 후기 소설들의 남성인물들인 벌스트로드(Bulstrode), 그랜드코트(Grandcourt) 같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정도의 가학성을 띤 것으로 나타난다.

레드 딥스에서 시작되는 탐에 대한 매기의 반항들은 그녀 자신의 입장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그녀 자신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행위에 있어서의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느끼는 것에만 굴복할 거야”(450). 이것은 그녀의 인식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도덕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에서 그녀가 분명히 하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도덕적 관점도 탐의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며 포기할 수 없다고 깨닫는다. 따라서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주장과 권리를 중시하는 탐의 도덕적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종전의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입장으로 변모해간다.

2) 스티븐과의 관계에 나타난 매기의 순응과 저항

6권에서 왜 갑자기 스티븐이라는 인물을 도입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비평가들이 자주 다루는 문제이다. 비평가들은 우선 스티븐이 “상류층 사회” 출신이고 5권까지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털리버네와 닷슨네 가족들로 구성된 시골의 하층 중산계급(lower middle class)의 세계와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의 출신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이 스티븐이 대변하는 “상류층 사회”로 옮겨오면서 5권까지 천착되어 오던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점들 — 가령 매기와 탐을 구속하는 세인트 옥스(St. Ogg's)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 — 이 회피되고 대신 매기 개인의 내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구실을 마련해준다고 비판한다.⁵⁾

그러나 우리가 남녀간의 차이라는 이 작품의 핵심적인 개요와 스티븐을 관련시킬 때 그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며 탐의 도덕적 관점을 확장시키는 인물로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스티븐은 매기에게 부(富)의 상징이자 성적 매력으로 다가와 그녀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그녀를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서 등장한다. 매기는 탐과의 관계에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인 스티븐을 통해 그녀의 여성성의 가치가 뿌리 채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하며, 결국 그의 요구인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성의 가치의 완성을 이룩한다. 즉 스티븐의 중요성은 매기가 여성인물로서 도덕적인 성숙에 도달하는데 있어 거쳐야 할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가 작품에 도입되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의 하나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으로 연출된다는 점이다. 이

5) 그레이버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레이버는 스티븐의 묘사가 처음에는 상류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과 맞물릴 정도로 결코 호의적이지 않게 주어지다가 바로 6권의 9장에서부터 그를 옹호하기 시작하여 “맷시꾼”으로 처음 이 장에 등장한 그가 이 장을 떠날 때에는 “도덕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인물로 변한다고 보았다. 그레이버는 이런 방식으로 작가가 스티븐과 상류사회 사이의 대응을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그를 특권층의 신사로부터 낭만적인 연인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결국 외부 세계와 개인적인 세계를 분리시켜 전자는 최소화시키는 반면 후자는 극대화시켜 매기의 심리적인 세계만을 강조해서 다룬다고 비판한다. 사회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을 분리시켜 다루려는 이러한 엘리엇의 경향을 그레이버는 엘리엇의 에세이 “안티고네의 도덕성 (Antigone and Its Moral)”에 나타난 그녀의 비극에 대한 개념에다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George Eliot and Community 189-200).

작품이 맨 처음 출판되었을 때 지적을 가장 많이 당한 점이 바로 이러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이었다. “점잖음”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작품의 경향은 매우 도전적이었고 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마치 『제인 에어』(*Jane Eyre*)에 담긴 화자의 강렬한 감정을 위협스러운 것으로 파악했던 경우와 유사하다. 즉 빅토리아조 사람들은 여성 작가가 이러한 육체적인 세계를 다룬다는 사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⁶⁾

흥미롭게도 현대 비평 경향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스티븐과 매기의 관계를 바라본다. 현대비평의 주된 경향은 왜 매기로 하여금 스티븐을 포기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불만들이다. 당사자들인 루시도 필립도 매기가 스티븐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 그리고 스티븐 자신이 그토록 매기에게 사랑을 열렬히 고백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왜 굳이 매기는 그와의 결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따진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기의 선택은 생을 포기하는 자의 것이며, 그녀가 한 때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 켐피스의 자아포기의 윤리를 다시 한번 실천하는 꼴이 된다.⁷⁾

6) 이 작품의 출판 당시 어느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커러 벨(Currer Bell)과 조지 엘리엇,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조지 상드(George Sand)까지 모두 사랑을 감각을 통해 영혼을 사로잡고 구속하는 기이한 압도적인 힘으로 성찰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마음들이 서로 만날 때의 감각들을 묘사하는 데 계속 머물러 있다.” 계속되는 필자의 억양은 이처럼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는 여성 작속 머물러 있다.” 계속되는 필자의 억양은 이처럼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는 여성 작가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다. 즉 『물방앗간』에서도 다른 여성과 거의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남자와 한 때 눈이 맞은 한 양심적인 여성을 등장시켜 결국에는 그녀의 의무와 도덕성에 의해 그 남자를 포기한다는 플롯인데, 당연한 이야기기를 왜 굳이 그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해야 하며, 스티븐과 매기의 관능적인 장면들이 반드시 이 작품에 필요한 부분이었는가를 묻는다(“Unsigned review, Saturday Review,” in *George Eliot: The Critical Heritage*, 118). 당시의 스윈번(Swinburne)과 러스킨도 엘리엇의 소설에서 성애주의와 구습타파주의를 발견하고 이를 위협스럽다고 보고 개탄한 바 있다(배렛 2-3).

7) 조안 베넷(Joan Bennett)은 매기와 스티븐이 그들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독자는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매기와 스티븐은 자신들이 사랑에 빠져있다는 것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보다 더 용기와 정직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각각 필립과 루시와 결혼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상함과 반대되는 것 같다고 보았다(129). 또한 바바라 하디(Barbara Hardy)는 엘리엇가 작품의 초반에 체념이 고상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다가 결말에 가서 다시 그것을 뒤집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의 개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양자의 비평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스티븐과 매기의 관계가 단순히 남녀간의 관능적인 측면만을 묘사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도 아니며 또한 매기의 스티븐 포기가 단순한 자기희생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매기와 스티븐의 관계는 매기와 탐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들의 충돌을 보여주는 예로서 매기는 스티븐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관점이 중대한 시험을 맞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여성성의 가치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온 그녀는 이제 바로 그 여성성의 특질들로 인해 원칙과 권리에 입각한 도덕적 관점의 지지자인 스티븐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제껏 그녀가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것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면, 이제 그녀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불가능한 도덕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일관성”이 없게도 이제껏 스티븐의 도덕적 관점이 중시하던 자아주장과 권리의 개념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성의 가치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도덕적인 성숙을 이룩한다.

비평가들은 “물결에 떠내려가며(Borne along by the Tide)” 장에서의 매기의 수동성을 종종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기의 도덕적 위기의 묘사에 담긴 심리적인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엘리어트는 매기의 갈등의 구체적인 성격과 그녀의 수동성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화자는 독자에게 매기와 스티븐이 각기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앞 장면에서도 매기의 중요한 특성은 주변 사람의 내적 상태를 깊게 상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탐과의 관계에서 그렇듯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에 있어 망설이게 하며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판단을 보류하도록 한다. 이러한 그녀의 특성은 탐에 의해,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그녀가 “일관성이 없으며”, “나약하며”, “미성숙하다”는 비난을 받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은 여성과 관련된 특질들을 미성숙하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던 프로이트 이래의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인적인 필요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자신과 루이스와의 결합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깨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사회법을 깬다 하더라도 결합하는 것이 상관없지만 매기가 스티븐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 유대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66-67).

견해를 따른 것이다.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자신의 원칙과 권리에 따라 그때그때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매기의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어트는 매기의 행위를 그녀의 강점인 여성적인 특질들과 관련시켜 제시한다.

매기는 무엇보다도 스티븐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그녀의 자비와 보살핌의 도덕적 관점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지쳐 상심한 듯한 표정”에서 그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는 그녀와 눈길을 마주치기 위해 그녀를 쫓는 그의 “갈구하는 표정”(583)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한다. 또한 그녀는 그가 동정(同情)에 호소해 올 때 가장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아픈 마음의 간절한 원망을 담아 나직하게 부르는 ‘당신’이란 말을 듣고야 말았다. 그것은 마치 부르기 전에 주어졌어야 될 것을 간청하는 환자의 목소리 같았다. (585-86)

스티븐의 이러한 간청은 매기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간청은 그녀로 하여금 자주 모순되는 듯한 입장으로 몰고 간다. 모성애가 강한 그녀는 스티븐에게 자신이 무언가 자발적으로 했어야만 한 것을 소홀히 했지도 모른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올 때 그녀는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점이다. 매기의 이러한 측면은 노 젓는 장면 도중 그녀로 하여금 스티븐을 거부해야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지연시키며 스티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그녀는 스티븐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던가,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판단을 계속해서 유보하던가 한다.

“물결에 떠내려가며” 장 이전에 스티븐은 이미 매기에게 열정적인 사랑을 느껴 배셋(Basset)에 머무르고 있는 그녀를 찾아가 청혼했었다. 이 때 그는 자신이 루시와 정식으로 약혼한 사이도 아니며 매기도 필립과 정식으로 약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맺은 관계는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루시와 필립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자신들의 사랑의 감정이 분명할진대 서로 결

흔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569). 이에 매기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며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동정심과 믿음, 기억 등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겠느냐고 항변한다(571).

이처럼 매기와 스티븐 사이에는 매기와 탐의 사이에서 그러한 것처럼 상반되는 도덕적 관점이 자리잡는다. 스티븐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중요하며 자신의 권리 주장이 타인이 받는 고통에 대한 배려보다 더욱 중요하다. 자신이 매기에게 물리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매기 역시 자신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한 매기는 자신의 것이며 그는 매기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맺은 루시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약혼한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깬다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그가 매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한 루시와의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매기를 선택함으로써 루시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며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한다(569).

그러나 매기의 입장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권리주장과 같은 개념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되며 모든 판단을 인간 관계의 망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필립, 루시 등과 맺은 인간 관계도 이제 막 싹튼 스티븐과의 열정적인 관계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된다. 이러한 그녀의 판단은 자신에 대한 권리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처지에 기꺼이 공감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며 보살피 주고자 하는 그녀의 여성성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그녀의 가치이고 그녀에게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물결에 떠내려가며”의 장은 그러나 매기가 스티븐의 세계에 굴복해 들어가는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스티븐의 손에 이끌려 배에 오를 때의 매기의 수동성은 많은 수동태의 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강조된다.

매기는 누군가 자신을 정원 아래로 장미꽃 사이로 데려가고 있다고, 견고하고도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자신을 보트에 태우고 있다고, 발 위에 쿠션과 망토를 놓아주고, 양산을 펴주고 있다고 (양산 펴는 것을 그녀는 잊고 있었다) 느꼈다. 그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녀를 휩쓸고 가는 이 더 강력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해주었다. (588)

매기는 뒤늦게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잘못을 스티븐의 탓으로 돌리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그를 질책하기 시작한다(591). 이에 스티븐은 자신의 열정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녀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비난한다. 나아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고통받는 자의 역할을 자칭한다. 그러자 매기는 다시 한번 주저앉는다. 그녀는 그가 고통받고 있으며 자신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녀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녀가 탐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그로부터 소원(疎遠)해짐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제 스티븐의 분노를 두려워한다. 특히 자신이 그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그녀로 하여금 그의 욕구에 굴복하게 한다(592).

3) 매기의 도덕적 각성

“물결에 떠내려가며” 장 바로 뒤에 나오는 “각성(Working)” 장은 매기의 스티븐 포기를 자세하게 다룬다. 갑판 위에서 잠을 깬 매기는 곧 “무서운 진실”과 마주한다. 그녀는 거의 즉각적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깨닫는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한 때 신봉했던 토마스 아 켐피스의 체념의 신앙도 저버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삶의 실마리를 놓아버렸다. 한 때 먼 옛날에 그녀의 젊은 욕구가 그토록 강하게 움켜쥐었던 그 실마리를. (597)

이러한 그녀의 인식은 많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그녀의 스티븐 포기의 결행을 토마스 아 켐피스의 자아포기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달레스키 68). 그러나 매기의 남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낡은 체념의 철학을 탈피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스티븐과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그녀의 도덕적 선택은 그녀의 도덕적 관점에다가 자기주장과 권리의 개념을 포함하고자 하는 진정한 도덕적 성장을 향한 진일보이지, 다른 사람만을 위하고 자신은 불필요하게 고통받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다. 비록 이기심 대(對) 책임(혹은 자기희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제껏 매기가 알아온 유일한 언어들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결정은 그와 같은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선택을 의미한다.

비록 스티븐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매기는 그가 받을 고통을 생

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녀의 침묵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와 헤어질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598-99). 이러한 의사 표현은 그 자체로 매기가 자신의 도덕적 결행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은 이미 “모든 것은 결정 났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에 매기는 너무나 많은 것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녀는 스티븐을 따라나선 어제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제 난 어쩔 수 없었지요”(600)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때의 그녀의 발언을 전날 그녀가 한 말 — “당신은 내게 어떤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591) — 과 대조할 때 주어를 “You”에서 “I”로 대체시킴으로써 그녀는 이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변모를 보여준다. 이것은 모든 잘못을 스티븐의 탓으로 돌리던 미성숙한 단계로부터 잘못에 대한 그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티븐은 다시 한번 매기의 연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매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반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못되며 자신이 원하던 바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티븐의 회유와 원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스티븐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매기의 사랑을 환기시키며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한다. 그는 매기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것이며 어느 누구도 매기에 대해서 자신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못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는 과거는 아무 것도 없으며 “우리가 전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라고 주장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의 개념은 매기를 유혹할 수 있는 그의 최후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기는 이러한 스티븐의 주장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스티븐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녀 자신은 전심을 다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위의 말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아니. 내 전 마음과 영혼을 다 해서는 아니었어요, 스티븐.’ 그녀가 주저하면서도 확고하게 말했다. ‘내 온 마음으로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603)

즉 매기는 스티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자신을 지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 영혼”이 개입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들의 대화의 결론 부분에서도 매기는 “내 전 영혼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 전 영혼은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매기의 주장은 스티븐의 주장의 근거를 뿌리 채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야 비로소 스티븐은 매기로 하여금 떠나도록 허락한다(606).

매기가 스티븐을 거부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국 자기주장과 권리의 개념을 중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의 여성성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기주장과 권리를 수용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여성성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기의 스티븐 포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그녀의 여성적인 특질인 감정입의 능력은 그녀의 권리주장과 자기인식 만큼이나 그녀의 스티븐 포기를 감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티븐이 헤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벌어진 일을 주어 답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루시와 필립을 생각하며 스티븐을 포기할 결심을 바꾸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이제 그들의 고통을 알겠어요. 아니 느껴요. 마치 내 마음속에 그들의 고통이 새겨진 듯해요.’
(605)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이기는 하지만 매기는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스티븐을 원하지 않음을 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성적인 매력을 느꼈었다(미첼 104-21). 그러나 그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필립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스티븐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실인즉 남자들이 먼저 그녀를 원했다. 그녀를 향한 스티븐의 열정에 그녀가 반응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필립의 애정에 반응을 보였다(달레스키 1장과 3장). 그러나 이 두 사랑은 자신에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이제 그녀는 도덕적인 위기와 삶의 선택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보살핌과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보살핌이 불가피함을 인식한다.

4) 매기의 고향 회귀와 죽음

매기가 닷새만에 다시 세인트 옥스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난과 조롱이다. 탐은 가차없이 매기를 비난하며 그녀를 집밖으로 추방한다(612). 고향 마을 사람들 역시 매기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매기의 행실이 “단순히 여성답지 못한 당돌함과 고삐 풀린 열정”(620)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한다. 7권의 두 번째 장인 “마을 사람들 판결 내리다(St. Ogg's Passes Judgment)”의 끝 부분에서 작가는 탐과 세인트 옥스 마을 사람들을 “경구의 사람들”로 규정하여 그들의 관습적인 사고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폭넓고 굳건한 분별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구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찍이 우리의 삶은 신비하도록 복잡한 것이어서 경구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종류의 공식에 휩싸는 것은 성숙한 통찰력과 공감에서 솟아나는 모든 신성한 두근거림과 영감들을 억압하는 것임을 간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구의 사람은, 일반적인 규칙들이 진부하고도 명백한 방식에 의해 그들을 정의로 인도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 단지 일반화된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통속적인 대표자라 할 수 있다. (628)

이 구절은 이 작품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작가는 탐과 세인트 옥스 마을 사람들의 관습적인 사고가 추상적인 “경구들”이나 “일반적인 규칙들”, “공식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규칙들”에 의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러한 일반론과 원칙에 의해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원칙에 의존하는 정의의 도덕적 관점은 매기가 대변하는 보살핌과 책임의 도덕적 관점을 중요한 것으로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종종 편협하며 독선적인 것으로 흐르기 쉽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상적이며 맹목적인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내적인 감정과 욕구 그리고 인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중요한 것으로서 참작하는데 서투르다. 세인트 옥스의 예외적인 여성이랄 수 있는 매기의 이야기는 “경구들”을 존중하는 사회의 규범을 깨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자비와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하는 모든 여성의 이야기

이기도 하다(재코보스 67). 그녀는 추상적인 원칙에 충실하는 대신 인간의 내적인 욕구나 필요를 보살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외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관습적인 사회 규범에 도전한다. 규칙과 가부장제의 주요한 옹호자로 등장하는 탐은 감정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이러한 매기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매기는 항상 어리석음과 실수만을 되풀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 직전에야 매기의 도덕적 관점을 이해한다.

매기가 세인트 옥스에 돌아와서 박해와 시련을 감당해야만 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여성들간의 유대가 형성됨은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매기의 정신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 텔리버 여사는 탐이 매기를 집 밖으로 추방하자 그녀를 모성적인 본능으로 감싸며 밥의 집으로 기꺼이 동행한다(615). 큰이모 글렉(Aunt Glegg) 역시 매기의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의 집에 와 머물 것을 권유한다(631). 피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루시는 손수 매기를 찾아와 위로한다(642). 다른 여성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자비는 산업화의 시대에 점점 사라져 가는 인간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매기의 입장에 서서 그녀를 도와주고자 하는 이들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용기를 엘리어트는 강조한다. 어머니 텔리버 여사는 매기를 돕기 위해 탐의 결을 떠나야 하며, 큰 이모 글렉 여사도 매기를 변호할 때 남편과 싸워야 한다. 루시 역시 매기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부모 몰래 집에서 빠져 나와야만 한다. 이 때의 매기, 어머니 텔리버 여사, 큰 이모 글렉 여사, 그리고 루시는 탐, 스티븐, “경구의 사람들”, “세상의 아내” 등과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자비라는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다면 남성인물들은 새로운 산업 사회의 가치를 지지한다(픽스톤 92).

이제 스티븐과의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그녀가 이룩한 도덕적 성숙이 그 후 그녀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종전의 여성성의 가치에다가 자기주장과 권리라는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매기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즉 그녀는 여성성의 가치를 중시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한 가치마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자기주장과 권리라는 대립되는 가치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여성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것이 스티븐과의 결혼을 포기한 이후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엘리어트는 홍수 장면

의 도입을 통해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의 홍수 장면은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스티븐과 매기의 관계까지도 옹호하던 비평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개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데일(Thale)은 탐과 매기의 역사장면을 너무 안이한 결말 처리로 보아 탐과 매기의 성장의 실패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만 상징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52). 베넷도 탐과 매기의 죽음을 정직하지 못한 장치로 보아 엘리엇가 매기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다음 그 선택의 결과를 상상하기를 거부했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결말 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과장되고 멜로드라마적인 문체를 베넷은 작중 인물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관심이 해이해진 징후로 해석하였다(130). 네플마처(Knoepflmacher)도 홍수장면은 파괴시키고 독자에게 절망감만 남겨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비록 매기의 죽음이 독자로 하여금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별없는 희생”으로 남는다고 지적한다(182-83).

그러나 역사장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평자들도 몇몇 있다. 재코버스는 매기의 죽음을 남성적인 질서 내에서 여성의 요구를 담기 위한 작가의 시도로 보았다. 일종의 여성작가의 글쓰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홍수장면은 여성의 욕망을 아주 잘 극화시켜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71-76). 케이 엠 뉴튼도 매기와 탐이 홍수로 인해 파멸 당하지만 파멸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들 존재의 가치를 긍정하는 인간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즉 그들의 죽음은 물론인정한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구가한다는 것이다. 매기의 경우 스티븐을 포기함으로써 그녀 안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의 힘에 맞서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면 탐을 구하러 나감으로써 역사하고 마는 것은 비인간적인 자연의 힘에 맞서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06-21). 이들 외에도 비어와 낸시 밀러(Nancy K. Miller), 레이첼 듀플레시스(Rachel Duplessis) 등이 결말부분을 좋게 평가했다

복음주의적 페미니즘과 계몽주의적 페미니즘의 통합이라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시킬 때 홍수장면은 그 초자연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입이라고 본다. 우선 매기가 탐을 구출하러 보트를 타고 돌코트 방앗간(Dorcote Mill)으로 향할 때 그녀는 스티븐 포기라는 도덕적 선택을 통해 이룩했던 적극적인 여성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증한다. 그녀가 홍수가 범람하는 강 위로 보트를 저어나갈 때 그녀의 행위는 다분히

남성적인 힘을 구가한다. 동시에 탐을 구출하려는 그녀의 충동은 모성애적인 본능에 의존한다. 따라서 탐을 구출하려는 매기의 행위는 여성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행위이다. 그럼으로써 매기는 이 마을의 전설 속의 인물인 세인트 오그와 동일시되는 것이다(케이 엠 뉴튼 122). I권 12장에 소개되는 “베올(Beorl)의 아들 오그”는 원래 이 마을의 평범한 사공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저녁 두 팔에 아이를 안은 한 여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울며 애원한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고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이 때 “베올의 아들 오그”가 나타나 “내가 그렇게 해 드리리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182)라며 그녀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준다. 성모 마리아의 축복을 받은 “베올의 아들 오그”는 이 때의 행위에 의해 그 뒤 죽어 성인(聖人) 오그가 된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기거이 반응한다는 점에서 성인 오그는 매기와 공통되며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매기를 상징하는 이 작품의 주요 이미지가 된다.

또한 이 홍수장면은 탐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그가 무시해온 매기의 도덕적 관점을 중요한 것으로서 인정하게끔 만든다(654). 그리하여 매기가 지향하는 여성성의 가치는 탐이 지향하는 정의의 도덕적 관점에 대한 정신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그럼으로써 승리자 매기를 통해 엘리어트는 매기가 구현하는 여성성의 가치를 찬미한다. 비록 절박한 장면의 해결책(deus ex machina)을 통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대립되는 가치들의 궁극적인 결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제에도 부합하는 결말로 볼 수 있다.

Works Cited

- Austen, Zelda. "Why Feminists Critics Are Angry with George Eliot". *College English* 37(6) (Feb, 1976).
- Barrett, Dorothea. *Vocation and Desire: George Eliot's Heroin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9.
- Basch, Françoise. *Relative Creatur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4.
- Beer, Gillian. *George Eliot*. Brighto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6.
- Bennett, Joan. *George Eliot: Her Mind and Her Heart*. Cambridge: The Cambridge UP, 1962.

- Blake, Kathleen. "Middlemarch and the Woman Question". *Nineteenth-Century Fiction* 31 (Dec. 1976).
- Carroll, David R. ed. *George Eliot: The Critical Heritage*. New York: Barnes and Noble, 1971.
- Chodorow, Nancy.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Michelle Zimblist Rosaldo and Louise 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P, 1974.
- _____.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Daleski, H.M. *The Divided Heroine*.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1984.
- Donovan, Josephine. *Feminist Theory: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American Feminism*. New York: Continuum, 1997.
- Duplessis, Rachel Blau. *Writing Beyond the Ending: Narrative Strategies of Twentieth-Century Writ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 Eliot, George. *George Eliot Letters*. Ed. Gordon S. Haight.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54.
- _____. *Middlemarch*. Harmondsworth: Penguin, 1967.
- _____. *The Mill on the Floss*. Harmondsworth: Penguin, 1979.
- Fisher, Philip. *Making Up Society: The Novels of George Elio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1.
- Fitzpatrick, Winston. *George Eliot's Moral Vision: The Feminine Ideal*.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1987.
- Foster, Shirley. *Victorian Women's Fiction: Marriage, Freedom and the Individual*. London & Sydney: Croom Helm, 1985.
- Freud, Sigmund. "Som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Anatomical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1925). James Strachey, trans. and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the Hogarth Press, 1961.
- Friedann, Betty. *The Feminine Mystiqu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3.
- Fuller, Margaret.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W.W. Norton, 1971.

-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P, 1982.
- Graver, Suzanne. *George Eliot and Community: A Study in Social Theory and Fictional 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_____. " 'Incarnate History' : The Feminisms of *Middlemarch*." Kathleen Blake ed. *Approaches to Teaching Eliot's Middlemarch*. New York: MLA, 1990.
- Jacobus, Mary.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London: Methuen, 1986.
- Knoepfmacher, U.C. *George Eliot's Early Novels: The Limits of Re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Mill, John Stuart. "The Subjection of Women," in John Stuart Mill and Harriet Taylor Mill, *Essays on Sex Equality*, Alice S. Rossi,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Miller, Jean Baker.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 1976.
- Miller, Nancy K. "Emphasis Added: Plots and Plausibilities in Women's Fiction." *PMLA*, 96 (1981).
- Millett, Kate. *Sexual Politic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Mitchell, Judith. *The Stone and the Scorpion: The Female Subject of Desire in the Novels of Charlotte Bronte, George Eliot, and Thomas Hardy*.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
- Moers, Ellen. *Literary Women*. New York: Oxford UP, 1985.
-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Feminist Literary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5
- Newton, Judith Lowder. *Women, Power, and Subversion: Social Strategies in British Fiction, 1778-1860*.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1.
- Newton, K.M. *George Eliot: Romantic Humanist*. Totowa: The Macmillan Press, 1981.
- Paxton, Nancy L. *George Eliot and Herbert Spencer: Feminism, Evolution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Gend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91.

- Ruddick, Sara. "Maternal Thinking". *Feminist Studies* 6(Summer 1980).
-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79.
-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e and to Lessi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77.
- Stone, Donald D. *The Romantic Impulse in Victorian Fiction*. Cambridge: Harvard UP, 1980.
- Thale, Jerome. *The Novels of George Eliot*. New York: Columbia UP, 1959.
- Williams, Merryn.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Macmillan Press, 1984.
-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Carol H. Poston, ed. New York: W.W. Norton, 1975.